

3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277.30 (-161.57)	1107.05 (-34.46)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542 (-0.040)	1520.20 (+11.30)

AI 선제 투자하고
재무 안정성 챙겨
전자업계, 주춤 마무리
04



코스피·환율·유가 '3중고'... 韓 경제 먹구름

중동전쟁 한달

코스피 1000포인트 넘게 빠지고
환율 1520원 돌파, 휘발유 1900원
국내 주요지표 약세 '총체적 위기'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마치 최고가격제를 비웃듯 평균 1900원 선을 다시 넘보고 있다. 급기야 올해 물가 상승 폭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특히 우려 섞인 수치를 내놓은 대로, 국내 주요 지표는 약세를 거듭하며 총체적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요인을 가장 크게 떠안는 몇몇 국가들에 이름을 올리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2면·3면〉

전쟁 발발 직전까지 코스피 뿔박질 영향으로 앞다퉈 국내 자본시장에 쏠리자, 때아닌 대호황기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개인 매수는 잠시 멈췄으나 단기 종전설이 퍼지면서 다시 매수 위위로 돌아섰다.

백악관발 한마디 한마디에 단타 매매

2026년 3월 30일 (월) 우리나라 우리은행 10:49:06			
통화 CURRENCY	사실 때 YOUR BUYING	통화 CURRENCY	사실 때 YOUR BUYING
USD 미국	1,576.00	JPY 일본(100)	988.00
THB 태국	50.55	HKD 홍콩	202.00
PHP 필리핀	28.68	SGD 싱가포르	1,232.00
MYR 말레이시아	414.73	GBP 영국	2,095.50

이런 전쟁을 둘러싼 확전 우려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자리 잡은 30일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 원·달러 등 각국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뉴스

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의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 또는 미수 거래에 발 담근 경우 반대매매 당하기 십상인 구조로 흘러가는 중이다.

30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57(2.97%) 내린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지속한 반면 개인은 또 사들였다.

코스피는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6일의 6307.27과 비교해 1029.97포인트(16.3%) 빠졌다. 지난 26일부터 내리세 거래일 하락했다. 각각 주당 20만 원과 100만 원을 웃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기준 17만6300원, 87만3000원으로 내려앉은 상태. 원/달러 환율은 30일 중동발 불안 지속에 152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520원 위로 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4시43분께 1521.1원까지 올랐다. 오후 3시30분 주간 거래를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515.7원으로 마친 뒤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 1561.0원)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기업 대출금리 상승 '돈맥경화' 삼성전자, 노사 입장차... 성과급 개편 결렬

美 장기국채금리 급상승 영향 韓 채권시장 자금조달 비용 상승

세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1.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428%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연 3.962%)보다 0.466%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27일에는 장 중 4.48%를 웃돌았다.

갈수록 악화하는 중동 상황(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 후퇴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흥해 봉쇄 가능성이 커지자 유가 급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

지던 미국 채권을 시장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과 달리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 만기가 긴 국채 보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경우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투에 따르면,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23%까지 올랐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보다 상회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노사 입장차... 성과급 개편 결렬

사측, 제도유지 특별포상 제시에
노조,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 요구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로 결렬됐다. 회사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에게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을 직접 제안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사측은 "대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경쟁사 기준보다 성과급 재원을 더 사용해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도 초과이익성과급(OPI) 50% 외에 추가로 경영성과 개선시 25%를 포함한 성과급 최대 75%를 지급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OPI 제도의 상한선인 연봉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대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부문 공통 지급률이 사업부별 지급률로 분리되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을 과거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설정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김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준비... 추경에 담을 예정" /사진 뉴시스
▲예산 의무지출도 손댄다 '첫 10% ↓'...내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13개 의혹' 김병기 4차 소환 임박...차남과 '동시 소환'도 검토
▲정동영 "北인권결의안 참여, 평화공존정책에 영향 없어"

▲이명박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13년 만의 인터뷰에서 탄식
▲국힘, 초·재선 모임 '정책 2830' 출범... "28년 총선·30년 대선 준비"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4년 역사에 '뉴메트로 선인' 11주년을 맞이하는 메트로경제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3면에 계속)

